

전남 서부권

청산도 '구들장 논' 세계 농업유산 추진



완도군, 경관작물재배·조례 제정 등 다각 노력

완도군이 청산도 '구들장 논'을 2013년도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록할 계획이다. 군은 농어촌의 사라져 가는 전통 농어업 유산을 발굴, 보전·전승하기 위해 청산도 구들장 논 등목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구들장 논' 가치 재발견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여는 등 선조의 지혜가 담긴 구들장 논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산도 구들장 논은 일반 다랑이 논과는 달리 논 위쪽과 아래쪽에 물이 흐를 수 있는 통수로가 있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청산도 구들장 논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록되면 농업 관광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여 지역이미지는 물론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슬로 걸리축제와 연계한 구들장 논 관광 상품화, 친환경 유기농업을 확대하여 농산물의 명품 브랜드화 등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폐기장 인허가 싸움 3라운드

무안군 행정심판 승소 불구 법원 소송 패소...향소 주목

무안군이 일로읍 죽산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 시설과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했다. 무안군은 폐기물 사업자 오모씨가 일로읍 죽산리 부지 4400㎡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짓겠다며 무안군에

적정성 여부를 물어온 데 대해 지난해 10월 부정적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오씨는 전남도와 광주 지방법원에 각각 행정심판과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정적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전남도는 같은해 12월 행정심판에서 무안군의 손을 들어줬지만, 광주 지방법원 최종 판결은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공장 부지가 마름과 600m, 남악과 1300m 떨어져

소음이나 비산먼지 피해가 없고, 공장은 도로와 산이 가려 시각적 피해도 없다"면서 "오로지 구 개발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허가후에도 무안군이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개선할 수도 있어 부정적 통보는 부당하다"고 무안군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은 광주고법에 항소해 귀추가 주목된다.

진도, 개매기 체험 7~8월 3차례 열려

진도군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개매기 체험행사를 3차례 연다. 개매기는 갯벌 위에 그물을 쳐 놓고 밀물 때 조류따라 들어온 물고기 때를 썰

물 때 갈하도록 해 잡는 전통 고기잡이 방식이다. 개매기 체험행사는 ▲7월 30일 오후 3시 30분(진도읍 청룡어촌체험마을) ▲8월 3일 오후 3시(의신면 점도 어촌체험마을) ▲8월 4일 오후 3시(임회면 죽림 어촌체험마을)에서 각각 열린다.

새 얼굴

"조합원 권익보호·농촌소득 향상 최선"

노은준 무안농협조합장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와 농촌 소득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재선에 성공한 노은준(56) 무안농협 조합장은 "경제사업은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농가의 이득을 위해 추진해야 하고, 이는 농협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면서 "산지유통 규모화와 교섭력 극대화, 차별화된 농산물 공급, 전문적·상시적인 품질관리 등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안 해제 출신인 노은준 조합장은 26년간 무안농협에서 근무한 후 명예퇴직했으며 (사)한국양과생산자협의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한편 5개 농협을 합병한 무안농협은 자산규모 2941억, 조합원 6600여명의 대규모 농협이다.



조선 수군 진영 木浦鎭 내년 말 복원사업 완료

시 94억 들여 객사 등 조성

조선시대 수군 진영인 목포진(鎭) 복원사업이 내년말 준공된다.

목포시는 목포진성 터인 만호동 일대 전체면적 7953㎡를 복원하고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총사업비 94억원(국비 27억원·지방비 67억원)을 투입해 아사, 객사 등 목포진을 복원하고, 역사공원을 조성해 역사교육의 장과 관광문화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토지·지장물 철거, 시굴조사, 썸지공원 조성 등을 마치고 관아 복원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



목포영·목포대·만호영·만호진·만호정 등으로 불린 목포진 유적은 현재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만호동 민가의 담이나 축대가 당시의 성돌로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진의 설치 시기는 지금의 목포와 지리적으로 일치하기 시작한 목포역사의 출발지로써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읍 정주고가교 전면통제

KTX 공사 재개따라 8월 중순부터

정읍시는 KTX 공사의 재개에 따라 8월 중순부터 정주 고가교를 통제하는 모든 차량을 전면통제한다. 정읍시는 "지난 6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를 거쳐 공사가 재개됨에 따라 철거에 들어간다"며 "정주 고가교(4차선)는 철거 후 지하차도로(6차선)로 2014년 말 개통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주 고가교는 당초 대체도로인 농소로가 지난 4월 개통됨에 따라 철거할 예정이었으나, 그동안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정읍역 선상역사 및 지하차도 백지화 검토가 알려지면서 철거가 지연됐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 2월 정주 고가교 정밀안전 점검에서 D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교량의 안정성 확보 및 시민의 통행 안전을 위해 5월 1일부터 15t 이상 화물차량의 통행을 제한해 왔다.

전북 정읍시는 "정읍시장은 당초 대체도로인 농소로가 지난 4월 개통됨에 따라 철거할 예정이었으나, 그동안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정읍역 선상역사 및 지하차도 백지화 검토가 알려지면서 철거가 지연됐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 2월 정주 고가교 정밀안전 점검에서 D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교량의 안정성 확보 및 시민의 통행 안전을 위해 5월 1일부터 15t 이상 화물차량의 통행을 제한해 왔다."

피서철 도서지역 여객선 운항 늘린다

피서객 증가...군산해경, 군산~선유도 등

올여름 피서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북지역에서 섬 지역을 연결하는 여객선의 운항 횟수가 늘어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012 전북 방문의 해"를 맞아 도내 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7%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객선사와 협의해 여객선을 증편 운항하기로 했다. 해경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는 '하계 피서철 특별교통 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군산, 격포항에서 섬을 오가는 5개 항로에 여객선 9척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을 위해 군산항 등 8개 주요 여객선 터미널과 선착장에서 읍주운항행위, 무허가 여객 운송행위, 과승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군산항 등 8개 주요 여객선 터미널과 선착장에서 읍주운항행위, 무허가 여객 운송행위, 과승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국악의 고장서 여름휴가 보내세요

남원시, 피서객 유치 운동...춘향 테마파크 '전통문화페스티벌' 운영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전북 방문의 해'를 맞아 남원시가 '여름휴가 남원에서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작인 남원 휴가지는 춘향 테마파크와 '국악의 성지', 달궁계곡, 뱀사골 등을 꼽을 수 있다. 춘향 테마파크에서는 '전통문화 페스티벌'이 운영된다. 동헌재판과 사도생일 잔치공연, 전통의복 체험, 미니어처 장구 만들기, 육사정 체험 등 14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오는 28일에는 '제1회 전국 제기차기 대회'가 열린다.

소리여행'이 공연된다. 시립국악단과 농악단을 비롯해 다채로운 예술단체 공연을 피서객들에게 선보인다. 운봉면 '국악의 성지'에서 열리는 남원 국악테마여행도 관광객의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국악테마여행은 우리 장단을 배우보는 국악 플러스체험 프로그램과 난타공연, 관객 수요 중심 맞춤형 국악공연 운영으로 최근 외국관광객은 물론 수확여행 프로그램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남원지역 최고의 피서 명소는 지리산 달궁계곡과 뱀사골이다. 자연과 함께하는 '지리산 둘레길' 걷기는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심

신안정과 가족간의 소중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남원시는 여수 엑스포와 연계해 '엑스포 구경은 여수에서, 관광휴양은 남원으로' 상품을 개발, 여행사 등을 통해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단체관광객을 위한 시티투어 해설안내와 도보여행객을 위한 '지리산 둘레길' 이야기꾼 운영 등 맞춤형으로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숙박업소와 음식점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로 휴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정읍 '씨없는 수박' 품평회

정읍시(왼쪽에서 두번째) 정읍시장과 농업관련 기관단체장들이 지난 14일 정읍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9회 단풍미인 씨없는 수박' 품평회 입상작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품평회 대상은 무게 10kg·당도 13브릭스(Bx) 수박을 출품한 김경태(이평면)씨가 차지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kwangju.co.kr

김경태(왼쪽에서 두번째) 정읍시장과 농업관련 기관단체장들이 지난 14일 정읍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9회 단풍미인 씨없는 수박' 품평회 입상작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품평회 대상은 무게 10kg·당도 13브릭스(Bx) 수박을 출품한 김경태(이평면)씨가 차지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kwangju.co.kr

단신

군산 청소년 문화의 집 '토요학교' 입학식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관장 이원영)은 지난 14일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연회장에서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이하 토요학교) 입학식을 가졌다. 토요학교는 주5일 수업제에 따라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들에게 학교밖 학습 기회를 제공

공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설된 프로그램이다. 토요학교는 ▲진로탐방 및 지역학 ▲지역생태 탐사 등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 탐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남원경찰 등굣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남원경찰서는 최근 녹색어머니회, 배움터 지킴이와 함께 남원시 교통초등학교 정문에서 등교길 학교폭력 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여름방학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티켓 북 판별을 전시하고, 홍보 전단지

를 배포 했다. 방촌원 서장은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이 매 주·목·화요일에 시내 권 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에 맞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고창군 피서철 물놀이 안전관리 간담회

고창군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지난 13일 구시포와 동호해수욕장에서 관계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좌담회를 개최했다. 군은 올해 이상 고온 현상으로 무더위가 일찍 찾아옴에 따라 지난해보다 10일정도 앞당겨 해수욕장을 개장했다.

이강수 군수는 "올해 피서객이 지난해보다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놀이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사고없는 안전한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부안군 농기센터 참뽕오디 가지치기 교육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와 오디뽕산·학·연·협력단은 지난 5일부터 12개 읍·면 재배포장 현장을 찾아 내년 참뽕오디 농사를 알차게 준비하기 위한 가지치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오디 수확이 끝난

나무의 갈고양을 고르게 하고, 새순이 쉽게 돋도록 병해충을 막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토양관리 등 현장 자문을 통해 고품질 오디뽕을 생산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